

2019 세계수영선수권 ‘딜레마’

개최하자나... 대회 예산만 2000억원...국고 지원 없인 광주시 감당 어려워 포기하자나... 위약금·신인도 하락·‘국제경기지원법’ 통과 노력 ‘물거품’ 우려

광주시가 개최권을 포함한 최대 2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되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광주시는 최소 30~40%의 국비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조직위 출범과 사무국 구성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회 포기 및 반납을 고민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세계수영연맹(FINA)과 약정한 개최권을 2200만달러(242억원) 중 지난해 예약금 및 개최권을 600만달러(76억원)을 냈다. 하지만, 올해는 9월까지 300만달러(36억원)를 내야 하지만 연말까지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이는 수영대회 관련 정부 예산이 이달 말까지 잡혀 있는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반

영되지 않으면 대회 반납 결정 등 특단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당시 대회 개최 예산은 1149억원이었지만, 애초 U대회 시설인 남부대 국제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새로 임시 수조를 설치하는 데만 5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 648억원이 투입된 남부대 국제경기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 관람석 3590석에서 1만5000석을 추가로 증설해야 함에 따라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다.

윤 시장은 이러한 이유로 전남 공감회의에서 “자체 예산만으로 재정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 존폐상황에 몰려있다”면서

“U대회를 치르면서 빛(910억원)이 늘었고 애초 U대회 시설 이용을 생각했지만 어렵게 됐다. 임시시설을 하는데도 550억원이 추가된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가뜰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 탓에 국비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광주시 재정으로 대회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윤 시장의 솔직한 심정 토로로 보인다.

현재 수영대회 조직위 설립과 운영비 등으로 시가 요청한 국비 46억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른바 ‘쪽지예산’을 통해 살려낼 계획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기대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사정과 함께 FINA에 지불해야 할 올해 개최권을 연말까지 요청한 배경에는 광주시가 대회 포기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 성격상 대회 반납도 여의치 않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이미 국제수영연맹에 600만달러를 낸 데다 500만 달러에 달하는 위약금, 그동안 쓴 유치활동비 등 날릴 돈이 한 두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이나 U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명성 추락은 무형의 손해다. 또한, 국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는 2019년 7~8월께 열릴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를 지켜본 뒤 연말에 대회 포기 여부 등을 결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 담양 무월마을

年 14만명 찾는 창평 삼지내 ‘1등급 농촌휴양마을’

농식품부 선정, 담양 무월마을도

담양 무월마을과 창평 삼지내마을이 1등급 농촌휴양마을로 선정됐다. 3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5농촌관광사업 평가에서 무월마을과 삼지내 마을이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등급결정 평가항목은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 69개로, 1등급부터 3등급, 등외로 평가점수가 이뤄졌다. 담양 ‘무월마을’과 ‘창평삼지내마을’은 가장 높은 점수인 별 5개를 받았다.

등급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휴양마을 350개소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실시했다.

1등급을 받은 ‘무월마을’은 마을전체가 돌담으로 조성돼 농촌마을의 소박함이 그대로 묻어나며, 마을 내 20여동의 한옥 민박체험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휴양휴식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무월마을은 특히 지역특산물인 대나무를 이용한 대통반 만들기 및 메밀묵·쌀강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거리 등을 선보이며 연간 1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한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창평삼지내마을’은 옛 풍경이 잘 보존돼 있고 등롱문화재인 아름다운 돌담길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달팽이학당, 한옥체험, 근대 교육의 산실인 상월정까지 이어지는 탐방로 등 관광명소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14만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을 대표하는 휴양마을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마을은 담양 무월마을과 창평삼지내마을 등 전남 2개 마을을 비롯한 전북 익산 산들강유포마을, 전북 완주 장포마을, 경기 양평 수미마을,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경남 창원 빛동해마을 등 8곳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2015년 하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가 3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시·도 실무위원들이 협력과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전북 ‘전라도 1000년’ 기념사업 공동 시행

호남권정책협의회 개최

광주와 전남·북은 2018년 ‘전라도 정도(定道) 1000년’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해외 호남향우 사회와 호남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 수서발 KTX 개통과 함께 호남선과 전라선을 주요전망에 맞게 증편하고, 광주 ‘빛고을 봉사단’의 경험을 다른 대규모 행사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는 3일 오후 담양리조트에서 2015년 하반기 호남권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합의했다. 순서에 따라 전남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지사는 고

려 현종 9년(1018년) 강남도(江南道)와 해양도(海陽道)를 합쳐 전라도(全羅道)로 이름 붙인지 1000년이 되는 2018년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합의, 이를 위한 추진준비단을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호남 3개 시·도가 해외 호남향우들과의 소통 강화에 합의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세계 호남향우회를 3개 시·도에서 차례로 열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예정된 ▲전북의 2023세계제퍼리 세만금 유치와 2016세계지방정부연합아태총회 개최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및 2016광주비엔날레 개최 ▲전남의 2016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등의 성공을 위해 함께 홍보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3개 시·도지사는 그동안 호남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해온 13개 상생협력과제 중 완료된 5개 과제를 제외한 ▲군산~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 등 8개 과제를 계속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지사는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해외 호남향우들과의 소통을 함께 강화한다는 합의는 3개 시·도가 호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세계로 확대한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고 “이 사업들을 통해 호남인들께 새로운 긍지와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살림 팍팍’ 지자체 축제·행사엔 ‘핑핑’

광주·전남 지난해 485억 지출

지방재정이 열악한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에 쓴 경비가 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와 전남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보공개 웹사이트 재정보고(http://lofin.moi.go.kr/)에 공개한 각종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광주 85억8600만원, 전남 399억5200만원 등 모두 485억3800만원에 달했다.

이 경비를 전체 쓴 예산(세출결산액)과 비교하면 광주(4조8571억원)는 0.18%, 전남(13조7433억원)은 0.29%다. 지자체별로 광주는 결산액 대비 0.13%인 40억원,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0.83%인 16억66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다. 광산구가 8억1500만원, 서구 7억1500만원, 남구와 북구는 6억9500만원과 6억9000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광주 자치구는 동구를 제외하고 0.15%(북구)에서 0.24%(남구) 수준이다.

전남은 도 분청이 결산액(5조1854억원) 대비, 0.10%인 53억원을 지출했다.

결산액 대비 축제 경비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완도군으로 0.73%인 25억4000여만원을 썼다.

0.5%인 이상 경비를 쓴 지자체는 곡성(0.64%, 17억여원), 함평(0.62%, 19억여원), 무안(0.58%, 18억6000여만원)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市, 롯데쇼핑 월드점점 불법 재임대 법적 대응키로

계약 해지·고발 등 검토

광주시가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점점의 불법 재임대(전대·轉貸)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광주시는 3일 롯데쇼핑(주) 광주월드점점의 불법 재임대 행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등에 따른 계약해지와 고발을 검토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법률 자문도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을 통해서도 이미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답변을 얻어 계약해지 등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2007년 협약서 상 롯데쇼핑(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대매장 면적은 9289㎡이지만 실제로는 1만3287㎡(2014년 기준)에 달했다. 입찰 당시에는 재임대 금지 각서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각서에는 ‘시의 승인없이 대부분은 재

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 대부분은 건물이나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건물은 기부채납한 것이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에는 세무 관련 부서에서 전대 규모와 면적 등을 파악한 사실이 드러나 시의 묵인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윤장현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불법 재임대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묵인, 방임 등이 있는 지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검토가 끝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시장의 최종 재가를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PASTA/PIZZA/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인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